

# 강진군, 관광패턴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로 소규모 '생활밀착형'으로 변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일반인 참여 확대

강진군이 관광패턴의 변화를 주도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올해를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광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6월 14인이었던 관광객 수가 올해 7

만5천 명으로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율을 보였다.  
강진군 뿐만 아니다. 여수, 순천 등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들도 관광객이 50~6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패턴이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 가족 및 연인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 속 여가활동을 즐기는 소규모 '생활밀

착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재 강진군에서 운영중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에 나서 방문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이 투입된다.  
일주일간 관내 푸소농가에서 함께 생활하며 주민과 어울려 강진의 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4팀 38명이 참여했고 예약도 100여 팀에 이를 만큼 관광객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군은 기존의 푸소 체험 운영에도 변화를 준다.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었던 푸소 체험은 올해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강진군에서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의 강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67% 대폭 상승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 27부터 5월

휴관 이후 5월11~6월30일까지 2천여명 이용 2천7백만원 매출  
10일까지 휴관했다. 이후 지난 5월 11일 재개관에 운영해오고 있다.  
군은 재개관일인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2천여 명에 달하며 2천7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이용객이 1천 245명, 매출이 1천7백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용객 수 67%, 매출액은 71%가 증가한 수치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9월말까지 폭염대책 기간 설정...그늘막 씌워·관광지 쿨링포그 운영

해남군은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가량 높아지고 강력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폭염대책기간인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관내 주요 관광지 등 8개소에 관광객의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그(물안개 분사장치) 시설을 운영하고, 각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572개소를 운영한다. 시설 운영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해남읍 횡단보도에 그늘막 쉼터 21개를 설치해 보행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가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안부살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관련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도로의 지열과 대기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차 운행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농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에 순찰을 실시하고 축사 및 수산 증양식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군은 기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폭염특보의 발령 또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군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신속히 발송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흥군, 옥외광고물 추락 대비 안전점검



## 장흥군, 옥외광고물 추락 대비 안전점검

장흥군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실시한 이번 점검은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 주변 광고물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했다.  
안전점검 후에는 부차 및 고정상태나 파손, 노후화, 위험성 정도를 감안해 우선 장흥읍과 회진면 일대 21개 노후 간판 철거했다.  
장흥군은 앞으로 중심상권이 형성 지역에 '들린 시티, 클린 스트리트 투게더' 캠페인을 추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완도군-목포대 '맞손'

해양치유산업 진흥 및 인적 교류 등 협력하기로

완도군은 지난 3일 목포대학교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해양치유산업 진흥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인재 양성,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해조류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이벤트로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 내년에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박람회는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바이오와 의약, 뷰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해조류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산 해조류가 우수하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시장 선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조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박람회로 이끌겠다."며 "목포대와 과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보배섬 SNS 서포터즈 공개 모집

15일 까지 30명 내외

진도군이 제3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SNS 홍보대사로 보배섬 진도군의 독특한 매력을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 줄 '제3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30여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된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말에 발표한다.  
군은 SNS 서포터즈에게 게시

물에 대한 원고료와 우수 게시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주요 축제, 문화·관광 등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공유하고, 보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 온라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궁무진한 보배섬 진도군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흥미거리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진도 홍보 도우미가 돼 줄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